

김인영 개인전

The Body of Bodiless Code

23. 02. 18 - 23. 02. 26

서울대학교 우석갤러리

출입통제된 문 앞에서 스마트폰 화면에 정사각의 기하학적 격자문양을 소환한다.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 기호를 기계에 인식시키며 우리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출입을 허가받는다. 이 네모들의 집합은 일상의 곳곳에서 발견된다. 우리는 익숙하게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대며 설명서에, 결제창에, 등록 페이지에 즉각적으로 도달한다. 매일같이.

QR(Quick Response)코드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QR코드를 화면에 띄우고, 기계에 인식시키는 것은 팬데믹 이후 전화걸기만큼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하지만 표면적인 작동 양상을 통해 직관적으로 체득한 사용법은 우리에게 그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는다. 유저는 시야에서 사라진 작동 원리는 의식조차 할 필요없이, 몸을 쓰듯 자연스럽게 디지털 기기의 기능을 사용하면 될 일이다. 우리는 QR코드를 잘 사용하지만, 잘 알지못한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QR코드를 소재로 한 <인식의 경계>(2021), <재귀-체 再歸-體>(2021), <The Place of bodiless code>(2023) 작업을 통해 QR코드에 대해 우리가 가진 부정확한 관념에 주목하고 있다. 각각의 작품은 QR코드 본래의 특성으로 생각되었던 '디지털 그래픽 기반의 정사각 형태', '정보에 연결되는 매개적 기호', '물질적 지지기반이 없는 비물질적 데이터'라는 통념을 비틀어 제시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거듭 변경하고 수정하도록 만든다.

<인식의 경계>는 점차 형태가 흐트러져가는 QR코드가 어디까지 인식될 것인가를 가늠하며 연쇄적으로 하나의 코드를 손으로 베끼는 실행 과정을 통해 그것의 작동 방식을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다. 이는 관객에게 기계적 인식의 정도를 검증하는 행위를 유발하며, 그로부터 인간의 시각적 인식의 경계와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재귀-체 再歸-體>는 어떤 것으로 연결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QR코드 통상의 기능에 주목한 것이다. 이 작업에서는 다른 시공간, 혹은 내 눈앞에 있는 것과 연관된 또 다른 정보로 이동하는 매개로서의 QR코드를 'A는 A다'를 구현하는 기호로 설정한다. 울퉁불퉁한 표면을 가진 카페트 자수로 만들어진 QR코드가 인식된다는 것, 심지어 비스듬히 빗겨 찍을 수밖에 없는데도 링크가 뜬다는 사실은 관객을 당혹스럽게 만들며 대상에 대한 관념의 틀을 깨는 순간을 만들어낸다.

<The Place of bodiless code>는 디지털 기반의 비물질적 QR코드에 아날로그적 물질성을 부여하고 코드의 몸체와 그 몸체가 점유한 물리적 자리를 결속하여 물질적 지표성을 획득한 QR코드를 설계한 작업이다. QR코드가 그려진 사물로서의 그림들이 차지한 물리적 '자리'의 모습은 그림의 뒤에 가려져

확인할 수 없다. 이 작업은 그 감춰진 뒷면을 전면에 드러나 있는 QR코드를 통해 디지털 기반의 이미지로 확인하도록 만든다.

현재 처해있는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내 눈 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 것인가? 이 비평적 입장에 대한 고민은 눈 앞의 디지털 코드를 사물로서, 기호로서, 조형적 형상으로서, 다층적으로 바라보도록 만든다. 디지털 기기의 몸체를 임시적으로 점유하는, 즉 고유한 몸이 없는 디지털 데이터에 새로운 몸을 부여한 이번 *《The Body of Bodiless Code》*는 결국 몸이 없는 이미지의 세상에서 무더졌기에 더욱 갈망하게 된, 물질에 대한 체감을 되살리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